

# JUDGE'S EYE



## 라다완 초티타다(태국) Ms. Ladawan Chotithada

라다완 초티타다 심사위원의 본래 직업은 은행원으로 1989년부터 요크셔 테리어를 브리딩 하며 애견계에 입문하였다. 미국에서 전문 미용 기술 연수 후 귀국 하여 요크셔 테리어 브리더로 명성을 떨쳤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태국 요크셔 테리어 탐 브리더로 선정되었으며, 웨스트 민스터 도그쇼 등 미국과 캐나다의 도그쇼 에서도 높은 상력을 획득 하였다.

탐 브리더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치하 하며 태국켄넬 클럽이 공로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으며, 브리딩 지식을 인정 받아 대학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FCI/AKU/KATH 전견종 심사위원으로 태국 전역의 도그쇼를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헝가리, 홍콩 등의 도그쇼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먼저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으셨는데, 5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와,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도그쇼 운영, 출진견들의 퀄리티, 출진자들의 매너, 그 어디에서도 부족한 점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 시간에 맞춰 도그쇼가 완벽하게 운영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꼼꼼하게 저희를 신경 써 주신 총재님을 비롯한 한국애견연맹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링에서 멋진 팀워크로 완벽하게 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준 스텐더드 및 통역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기억에 남는 견종이 있나요?

무엇보다 40도가 넘게 출진한 포메라니언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태국처럼 인기가 많은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퀄리티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심사한 대부분의 견종들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 심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심사위원 공통 질문)

만약 똑같은 퀄리티의 견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개가 바른 자세로 걷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올바르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개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시게오 사토 심사위원이 KKF 챔피언쉽 도그쇼의 9그룹 심사를 보고 있다.>

## 시게오 사토 심사위원의 심사평

### 오랜만에 한국을 찾으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심사를 했었지요. 이번은 5년 만의 방문인데, 한국은 운영 면에서 정말 많은 발전을 했네요. 솔직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걱정되기도 했으나,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쇼가 끝나서 좋았습니다.

### 기억에 남는 견종이 있나요?

가장 퀄리티가 좋았던 견종은 비송 프리제와 치와와였습니다. 이 두 견종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좋은 견들을 심사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9그룹의 견종들은 굉장히 좋은 견들이 많아 1석을 선정하기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제가 최종 선정한 비송 프리제가 KKF 챔피언쉽 도그쇼에서 베스트 인 쇼 2석을 차지해서 개인적으로 기뻐합니다. 흠을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완벽한 비송이었습니다.

### 한국 출진자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프로 핸들러로 40년이 넘게 활동해 왔습니다. 한국의 핸들링 수준은 높은 편이었지만, 리드줄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출진자를 보기도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아마도 견 소유주들로 제대로 핸들링 기법을 배운 적이 없어 그랬겠지만, 개의 수준은 뛰어난데 핸들링이 따라가지 못해 좋은 상력을 줄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개의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핸들러입니다. 견 소유주들도 앞으로 핸들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많은 연습을 통해 노력해야 합니다. 연맹에서도 초보자를 위한 핸들링 강습회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구요.

### 심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심사위원 공통 질문)

저는 심사위원은 무엇보다도 견종 스탠다드를 제 1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견이 가장 스탠다드에 근접한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심사하는 일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심사위원은 항상 스탠다드를 공부해야 합니다.

## 율리야 에이디티에네(리투아니아) Ms. Julija Aidietiene

율리야 에이디티에네 심사위원은 오브차카를 시작으로 애견계에 입문하였으며, 대학에서는 생물학을 전공하였다. 이후 와이어 폭스 테리어와 케리 블루 테리어를 22년간 브리딩하였으며, 최근에는 퍼그를 브리딩하고 있다.

FCI/LKD 전견종 심사위원으로 러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 주요 유럽 국가 도그쇼에서 활발한 심사를 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서 심사한 적이 있다. 리투아니아 테리어 클럽, 프렌치 불독 클럽 및 퍼그 클럽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리투아니아 켈넬클럽(LKD) 전무 이사로 재직 중이다.



### 한국은 첫 방문이신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전 심사위원이기도 하지만, 리투아니아켈넬클럽 전무 이사로 클럽 행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그쇼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아주 수준 높은 도그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 여러 견종을 심사하시고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 베스트 인 쇼 심사도 맡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베스트 인 쇼 심사에 대해 먼저 말하고 싶네요. 최근에 심사했던 심사 중에서 가장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3석까지만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 정말 힘들더군요. 사실 4, 5, 6석까지 상을 주고 싶었고, 베스트 쇼 링 안에 올라온 견들은 모두 탑 독이었습니다. 최종 베스트 인 쇼로 선정한 포메라니언은 포메라니언 타입을 정의하는 모든 면을 갖춘 견이었으며, 특히 움직임이 탁월했습니다. 9그룹의 견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비송 프리제의 피모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좋았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문제가 많은 편인데 한국에서는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 거의 대부분 훌륭한 견이었습니다. 특히 푸들의 미용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발톱 부분은 미용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물어 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 심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심사위원 공통 질문)

심사를 하다 보면 제 취향과는 동떨어진 견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왠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견이 견종 고유의 타입에 일치한다면 고민하지 않고 그 견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타입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견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견보다 우위에 두고 심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사위원이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 페기 비젤-맥실웨인 심사위원의 심사평

바쁜 일정 탓에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한

페기 비젤-맥실웨인 심사위원은 귀국 후 다음과 같은 심사평을 연맹에 보내 왔다.

한국에서의 심사는 멋진 경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애견연맹의 임직원들이 저에게 보여준 환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멋진 견들을 심사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한국의 도그쇼에서 제가 실망할 만한 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는 쾌적해서 개들에게 더없이 좋았으며, 도그쇼장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는 마치 축구장의 필드가 너무나 완벽하여 선수인 개들의 완벽한 움직임을 보는 것과는 같았습니다. 퀄리티가 뛰어난 개들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포메라니언은 제가 본 중에 최고였습니다.

베스트 인 쇼의 라인업은 이 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최종 베스트 인 쇼 견으로 블랙 라브라도 리트리버를 선정하였는데, 저를 정말 매료시켰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적당했고, 골격이 좋았으며, 머리는 딱 알맞았습니다. 피모는 놀라운 수준이었으며, 두터운 수달형 꼬리 또한 훌륭했습니다. 움직일 때에도 톱라인을 잘 유지했으며, 꼬리 또한 올바른 위치였습니다. 라브라도의 전형적인 기질을 갖춘 건강한 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든 물속에서든 자신의 사냥감을 행복하게 찾아오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견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멋진 도그쇼에서 멋진 견들을 만난 일은 저에게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애견연맹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음 도그쇼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 총 인터뷰 진행 : KKF 국제팀 김현정 과장 -

